

맛따라 먹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43 광주 문화·예술 관광

박물관엔 선인의 숨결, 미술관엔 예향의 정취

예향 광주의 예술향취를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물관을 팔아 광주·전남 예술인들의 족적과 삶의 자취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만치 않은 시간과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길을 나서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 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실속 광주문화·예술관광을 즐길 수 있다. 광주미술의 현주소와 예술의 뿌리를 만끽할 수 있는 미술관과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별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중외공인 문화벨트 안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역동적인 광주의 근·현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의 삶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서는 남도예맥을 대표하는 의재 허백련 선생의 삶과 예술을 조망할 수 있는 의재미술관이 있고, 향토 작가인 서양화가 우재길씨의 예술공간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

남도 미술 현주소 찾아

▲광주 시립미술관=지난해 10월 문화예술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중외공원에 터를 잡은 시립미술관은 남도 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현재 시립미술관에서는 남종화의 거목인 남농(南農) 허건(許健·1908~1987)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2월22일까지)가 열리고 있다. 호남 남종화의 거장인 남농의 작품 25점을 비롯해 1대 소치 허련, 2대 미산 허형, 3대 남농 허건, 임인 허립, 4대 임전 허문, 5대 허진에 걸친 운림산방 5대 화계 작품 9점도 함께 선보이고 있어 호남 남종화의 예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전에서는 남농이 전성기 시절 선보인 주요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소치 허련 탄생 200주년 기념전에 이어 특별전으로 화업을 잇고 있는 예맥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재일고포 하정용 선생의 기증 작품 컬렉션전이 열리고 있다. 문의 062-510-0700.

전통 민속문화·예술 한자리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광주·전남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예술 자료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민속문화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중류층 농가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1920년대 광주·전남의·식·주 관상상제 등 전통 문화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 생활문화 부문 전시관에서는 의류, 담뱃대, 등(燈) 기구 등 의식주 관련 자료 1천여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생업 부문에서는 농기구, 어업도구 등 40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공예관에는 죽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작품 200여점이 전시돼 있으며, 고문서·고책자 1천300점이 방문객을 맞는다. 문의 062-521-9041.

무등산 자락, 의재 예술혼 살아있는 곳

▲의재미술관= 남도 예맥의 대표 작가인 의재 허백련(1891~1977) 선생의 작품과 삶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 곳은 무등산에서 차발을 일구며 창작에 열정을 쏟았던 의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의재미술관은 건축학적으로도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한다.

무등산 중심사 등산로 옆에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현대식 건물인 의재 미술관은 지난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건축가 조성룡, 김종규씨가 설계했다. 무등산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건축미를 감상할 수 있다.

미술관 뒤편으로는 무등산 촌실 녹차밭이 있고, 그 앞에는 의재 선생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촌실현과 의재 묘소도 있다. 의재 미술관은 선생이 남긴 대표작들을 연중 상설 전시하고 있다. 문의 062-222-3277.

공간의 아름다움...공공예술의 전형

▲우재길 미술관=서양화가 우재길씨가 사재를 털어 건립한 우재길 미술관은 최근 광주시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무심는 건축인이 선정한 '숨어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입구에 자리한 '우재길 미술관'은 전면 공간을 공개된 공간으로 확보하고 뒷부분에 예술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예술의 정취를 나누는 공공예술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우재길 미술관은 관화예술의 맥을 지켜오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최근 작가 노정숙씨가 '공백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동판화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우재길 미술관은 해마다 주제를 선정해 국제관화교류전을 갖는 등 사라져가는 관화예술을 조망하고 있다.

미술관 지하에는 우재길씨의 작업실이 마련돼 있어 빛의 작가로 불리는 우씨의 작품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문의 062-224-6601.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기분 ₩19,500! 경제가 웃는 날까지 무-욱 계속됩니다

서울관광카바레나이트
(대인용 롯데백화점 뒤/예약:062-226-9334)

남성 헤어 가능장학 **大山프리모닝네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가발** **가발**

초슬림!!

귀여운, 볼륨업, 면적표, 눈매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문의: 062-471-5222